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論文

제주 전통 해녀복을 응용한
문화 관광 상품 개발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尹 星 熙

2011 年 12 月

목 차

국문초록

표 목차

그림 목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제주 전통 해녀복의 역사적 고찰	5
2. 제주 전통 해녀복의 디자인 분석	15
III. 제주 전통 해녀복을 응용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	22
1. 디자인 의도	22
2. 디자인 및 제작	22
IV.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1

국문 초록

제주도는 제주 자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개발전략을 채택하여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문화 이미지를 재고하고 홍보하는 일환으로 ‘제주 10대 문화상징물’을 선정하였고, 그 중 사회·생활 유산으로 분류된 해녀가 제주여성의 표상이자 제주여성문화의 아이콘인 것이다.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 전승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50대 아젠더로 선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해녀문화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독창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한다면 제주해녀문화의 유무형적 콘텐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의 전통문화는 물론 전통 해녀복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적이면서도 위생적인 제도법으로 구성된 전통 해녀복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응용한 제주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제주 전통 해녀복의 전통성 보존 및 대중화는 물론 해녀문화의 우수성과 향토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 해녀는 제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가계를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 운동사에서도 여성이 주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제주 해녀에 관한 역사적인 첫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작업은 남녀가 함께 하였으며 작업복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숙종 때 ‘나체업 금지령’에 의해 전통해녀복인 물소중이가 등장하였다. 제주 전통 해녀복인 물소중이는 물웃, 줌녀웃이라고도 하며, 물속에서 미역이나 소라 등을 채취할 때 입었던 옷으로, 제주 여성

들의 고유한 속옷인 소중이에서 유래되어 겹옷화한 작업복이며, 견고성과 편리함이 특징이다. 제작방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으로 한국의 전통복식 중 유일하게 노출된 형태의 옷으로, 오른쪽 옆선이 완전히 트인 구조이기 때문에 착탈(着脫)이 용이하고 살이 찌거나 임신한 여성의 특징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기능복의 역할도 하였다. 이는 일본으로 출가물질 당시 일본의 해녀들조차 일본 전통 해녀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녀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조오쟁’이라 부르며 즐겨 착용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그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녀복 물소중이는 생존을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강인한 생활력과 생활의 지혜가 함축된 제주여인의 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인에게도 전통 해녀복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은 물론 조선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확립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기능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미적인 추구를 위해 수(繡)나 매듭 등의 장식적인 디테일에서도 그 우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소중이의 기능적인 구조의 특성과 디테일의 장식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소품을 개발하여 제주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제시하였다.

물소중이가 가지는 과학적이고 독특한 구조를 재현하여 관광 상품으로 제시하기에는 실제로 한계가 있었으나, 물소중이가 갖는 형태적 특징과 장식적 디테일들을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한 디자인 작업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사려된다.

Key Words : 제주 전통 해녀복, 물소중이, 문화관광상품

표 목 차

<표 1> 연구 흐름	4
<표 2> 해녀복과 물질도구	12
<표 3> 작품 1 디자인 컨셉	23
<표 4> 작품 2 디자인 컨셉	25
<표 5> 작품 3 디자인 컨셉	27
<표 6> 작품 4 디자인 컨셉	29
<표 7> 작품 5 디자인 컨셉	31
<표 8> 작품 6 디자인 컨셉	33

그림 목 차

〈그림 1〉 탐라순력도 中 병담병주(屏潭泛舟)	7
〈그림 2〉 소중이	7
〈그림 3〉 1950년대 물질 나가는 해녀들	10
(http://jeju.grandculture.net)	
〈그림 4〉 물소중이의 명칭	15
〈그림 5〉 물소중이의 마름질	16
〈그림 6〉 물소중이 굴잡기 및 연결하기	17
〈그림 7〉 칠보문 中 전보(錢寶)문	10
〈그림 8〉 검정 물소중이 I	10
제주자연사 박물관 소장	
〈그림 9〉 마름모문, 능문	10
〈그림 10〉 검정 물소중이 II	20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1〉 분청자투각표형박산향로	20
디아모레뮤지엄 소장	
〈그림 12〉 검정 물소중이 II의 매친과 옆 바대	20
〈그림 13〉 작품 1의 도식화	24
〈그림 14〉 작품 1의 실물 사진	24
〈그림 15〉 작품 1의 디테일 사진	24
〈그림 16〉 작품 2의 도식화	26
〈그림 17〉 작품 2의 실물 사진	26

<그림 18> 작품 2의 디테일 사진	26
<그림 19> 작품 3의 펼친 실물사진	28
<그림 20> 작품 3의 실물사진	28
<그림 21> 작품 3의 디테일 사진	28
<그림 22> 작품 4-1의 실물사진	30
<그림 23> 작품 4-2의 실물사진	30
<그림 24> 작품 4-3의 실물사진	30
<그림 25> 작품 5의 실물 사진	32
<그림 26> 작품 6의 실물사진	34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세기의 산업은 2차, 3차 산업을 넘어 4차와 5차 산업의 개념을 확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원료를 생산하여 유통하고 서비스를 담아 판매하는 것에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나 매체,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담은, 세계가 요구하는 문화감수성을 충족시키는 상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인 경우 이미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관광 서비스업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그래서 제주의 특성을 부각시킨 다양한 문화행사와 개발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이 반영된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문화 이미지를 재고하고 홍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 10대 문화상징물’을 선정하였다. 그 중 사회·생활유산으로 분류된 해녀가 두 번째 상징물로, 제주여성의 표상이자 제주여성문화의 아이콘인 것이다. 제주 해녀는 제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가계를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 외에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진출하여 제주 경제사에도 그 업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독립 운동사에서도 제주 해녀는 여성이 주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주 해녀는 단순히 잡업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이라기보다는 근면하고 강인하며 용감한 제주 여성의 상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고된 노동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현재 해녀의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이미 고령화되어 해녀문화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미 아마(海女)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해녀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해녀축제나 해녀체험, 채취한 진주를 특산품으로 내놓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UNESCO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도 기

울이고 있다. 다행히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 굿인 칠머리당영등굿은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증식과 어업의 번창을 영등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을 가진 굿으로 벌써 1980년 11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되었고, 2009년 9월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9년 ‘제주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를 제정하여 해녀문화 발굴 사업을 통해 해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 전승키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2011년도 도정중점과제인 50대 아젠더로 선정¹⁾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주에서는 해녀문화를 2011년 11월까지 지방문화재로 지정, 2012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끌어 올릴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UNESCO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시켜 세계적인 문화유산 반열에 올릴 계획²⁾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해녀문화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 문화관광상품의 한 아이콘으로써 제주해녀가 물질할 때 입었던 전통 해녀복을 선택하여 이를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전통 해녀복인 물소중이는 물웃, 즈너웃이라고도 하며, 물속에서 미역이나 소라 등을 채취할 때 입었던 옷이다. 속옷인 소중이에서 유래되어 겉옷화된 작업복으로 견고성과 편리함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제작방법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으로 착탈(着脫)이 용이하고, 살이 찌거나 임신한 여성에게 적합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기능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주 해녀복이 일본으로 출가물질 당시 일본의 해녀들조차 일본 전통 해녀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조오생’이라 칭하여 즐겨 착용하였다³⁾는 기록을 보면 그 우수성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1) “세계로 올려 퍼지는 숨비소리, 제주 해녀축제” 자료검색일 2011. 9. 27, <http://culture.jeju.go.kr/contents/?mid=030102&act=view&year=2011&month=10&seq=294>

2) “韓日, 해녀문화 세계화 공동 노력” (2011. 4. 4), 韓日 문화경제신문, <http://copannews.blog.me/60127221934>

3) 좌혜경 외 (200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해녀*, 서울:민속원, p. 381.

그러므로 해녀복 물소중이는 생존을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강인한 생활력과 생활의 지혜가 함축된 제주여인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인에게도 전통 해녀복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은 물론 조선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확립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통 해녀복의 우수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적이면서도 위생적인 제도법으로 구성된 해녀복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응용한 제주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제주 전통 해녀복의 전통성 보존 및 대중화는 물론 해녀문화의 우수성과 향토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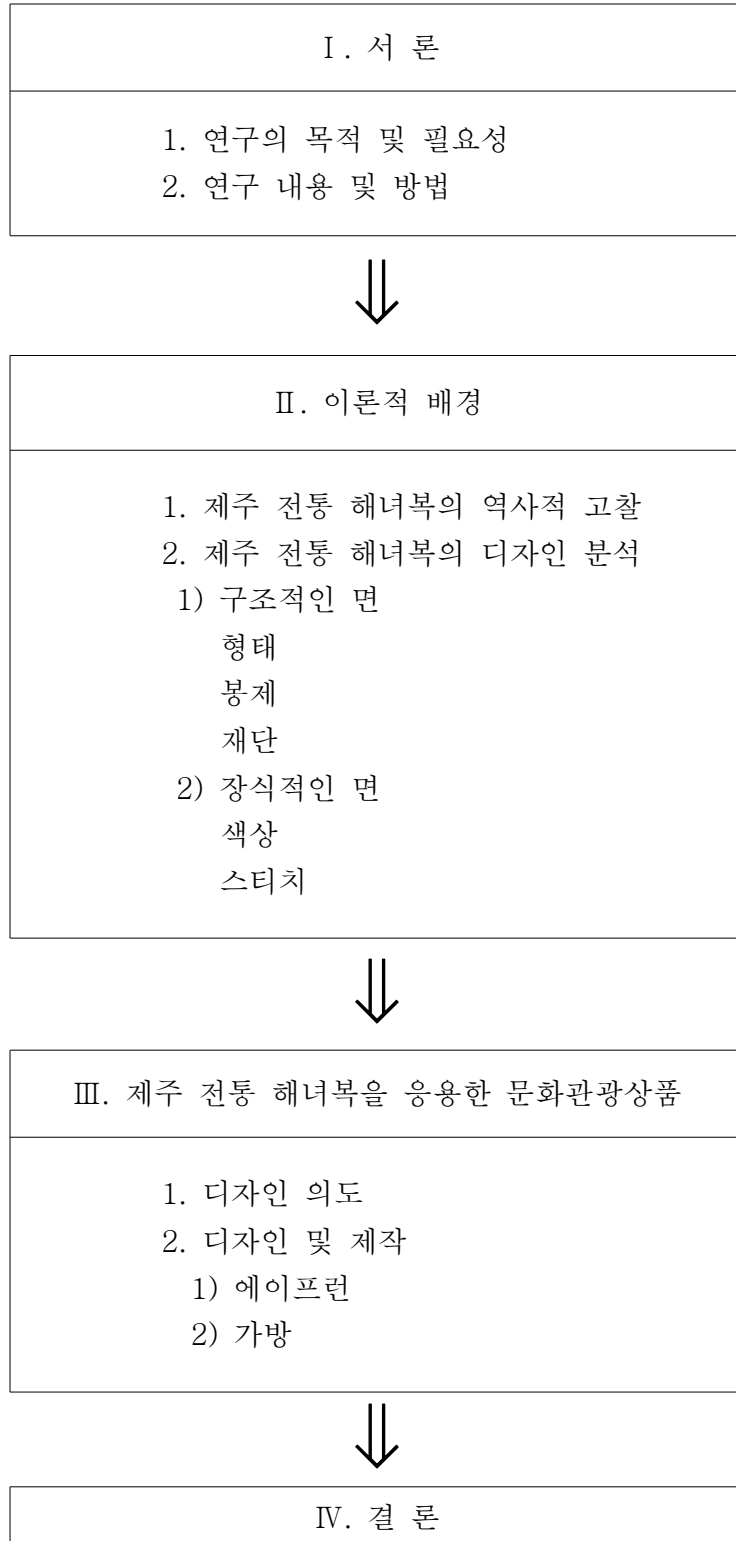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문헌 및 선행연구, 학위 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시제품 제작)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 제주 해녀와 제주 전통 해녀복에 대한 국내 단행본 및 선행 연구, 학위논문 등의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과 유래 등을 고찰하고, 전통 해녀복의 디자인 특성을 구성적 측면과 장식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주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모티브를 도출한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전통 해녀복과 해녀들의 물질 도구 등의 디자인 모티브를 응용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표 1> 연구의 흐름



II. 이론적 배경

1. 제주 전통 해녀복의 역사적 고찰

제주도는 자연적 특성상 생산수단으로 목축업과 농업, 어업에 의존하고 있어 목자(牧子)들이 입는 가죽옷, 농부들이 입는 갈옷, 해녀들이 입는 물소중이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노동복⁴⁾이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 해녀의 전통 작업복인 물소중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여성들을 잠녀(潛女)라고 하였지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숙종(肅宗) 40년(1714) 조의 이병상(李秉常)의 보고와 위백규(魏伯珪)의 『존재전서(存齋全書)』 ‘금당도선유기(金塘島船游記)’ 기록에는 ‘해녀(海女)’란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 어느 것이 제주의 고유 명칭인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예를 들면, 잠녀가 200년 전 일본에서 사용한 한자라는 의견과 일본 잔재가 남아있다고 주장되는 ‘해녀’, 그리고 ‘잠녀’는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다는 등 여러 주장들이 분분하다.⁶⁾ 그러나 역사적으로 생업을 담당하는 해녀란 말은 『삼국사기』 권 19 고구려본가, 문자왕 13년(503년) 4월 조에 있는 ‘가즉섭라소산珂則涉羅所産’이라는 문구에서 가(珂)는 제주의 진주 혹은 패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진주를 채취했다는 것은 바로 해녀가 단시간에 물에 잠수하여 진복과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였을 것이라는 추정⁷⁾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사료인 『엔기시키키(延喜式)』에는 일본의 헤이안 시대 초기인 엔기(延喜) 5년(905)의 율령세칙 중에 ‘탐라복(耽羅鰓) 6근(六斤)’이란 기록이 있다.

4) 김정숙 (1990), 제주도해녀복연구, 탐라문화, 10. pp. 58-59

5) 좌혜경 (2009), 제주해녀사, 제주해녀박물관 자료실, 자료검색일(2011. 7. 13), p. 2.
<http://www.haenyeo.go.kr/ekboard/view.php?btable=history&bno=1&p=1&cate=>

6) 좌용철 (211. 6. 02). “해녀? 잠녀? 진짜 제주어는 뭐?...학자도 의원도 헛갈려”, 제주소리.NET.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264> 참조

7) 좌혜경 외 (200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해녀, 민속원,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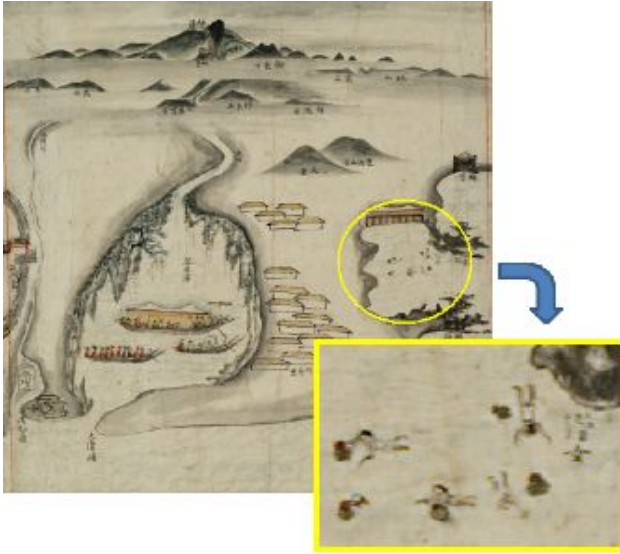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일본의 저명한 학자인 시마료타료(司馬遼太郎)는 ‘지금의 오사카 만 또는 이세 만 어딘가에, 탐라로부터 잡녀들이 자주 와서 그들이 큰 전복들을 채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다.⁸⁾

조선 후기에 이건(李健)이 지은 한문 수필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629)는 ‘물질하는 여자’라는 의미의 ‘潛女(잠녀)’라는 어휘의 용례(用例)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헌이다. 주로 ‘물속에 들어가서 발가벗은 몸으로(赤身露體) 미역을 캐며 남녀가 뒤섞여(男女相雜) 일을 하는데도 부끄럼 없이 일을 한다’라고 소개되어 있다.⁹⁾ 이는 실제로 이 시기의 해녀는 하위계급으로, 계급이 낮을수록 바닷가에 부락을 이루고 살았으므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귀한 옷감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평상복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살림에 작업과정에서 쉽게 헤질 수 있는 작업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또한 격식을 차리기에는 낮은 신분이었고, 남성들 없이 여성들만이, 주로 바다 속에서 작업을 하여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해녀들이 유교사상에 따라 남을 의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을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입증하기로 한다.

문헌 상 1105년(고려 숙종 10) 탐라군(耽羅郡)의 구당사(勾當使)로 부임한 윤응균이 “해녀들의 나체(裸體) 조업을 금한다”는 금지령을 내린 기록이 있고, 조선 인조 때도 제주목사가 “남녀가 어울려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한다”는 엄명을 내렸다. 그러나 나체로 물질을 하던 제주 해녀들의 작업복이 史的으로 처음 기록된 것은 숙종 28년(1702년) 이형상 목사 재직 당시 나체조업 금지령에 따라 수중작업복을 고안해 착용하였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왜구들에 의한 해녀들의 겁탈이 빈번하였고, 그 밖에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당시 이형상 목사가 제주의 동-남-서-북을 한 달에 걸쳐 순력한 후 그린 화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 중 '병담범주(屏潭泛舟)'편을 살펴보면, 지금의 용연이라는 지역인 취병담(翠屏潭)에서의 뱃놀이의 정경과 취병담 옆 용

8) 司馬遼太郎 (1986), 耽羅紀行, 박기엽 역 (1998), 탐라기행, 학고재, pp. 270-271,

9) 좌혜경 (2009), 제주해녀사, 제주해녀박물관 자료실, 자료검색일(2011. 7. 13), p. 19.



<그림 1> 탐라순력도 中 병담병주(屏潭泛舟)
제주특별자치도 소장



<그림 2> 소중이
제주 자연사 박물관 소장

두암 쪽으로는 해녀들의 잠수 작업광경이 함께 그려져 있으며 또한 ‘용두(龍頭)’와 ‘잠녀(潛女)’라는 표기가 되어있는 것을 보면 해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해녀복이 착용되었음을 규명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사려된다. 즉, 바다 위로는 둥근 테와 망사리와 함께 소중기(해녀복) 차림으로 작업하는 해녀들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¹⁰⁾ 여기에서 소중기란 제주 여인들만이 착용한 고유한 속옷으로, 소중이라고도 하였다. 해녀의 작업복은 잠수옷 · 잠녀옷 · 물옷 · 소중이 · 소중기 · 물소중이 · 해녀옷 등으로 불리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물소중이’라 명칭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금당도에서 기록된 위백규(魏伯珪)의 「금당도선유기(金塘島船游記)」(1791년)에는 통포 바닷가에서 해녀들의 물질작업을 보고 감회를 피력한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물질하는 아낙을 두고 잠녀 라는 용어 대신 해녀(海女)라고 기록¹¹⁾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포(統浦)에서 해녀가 전복 잡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알몸을 표주박에 의지한 채 거꾸로 몸을 세워

10) 李衡祥,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제주시소장본, 1994), 95쪽.

11) 좌혜경 (2009), 제주해녀사, 제주해녀박물관 자료실, 자료검색일(2011. 7. 13), p. 26.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니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듯, 해오라기가 물속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이였다. 차마 눈뜨고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 당시 금당도에서는 해너복을 착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바로 본토와 떨어져 있는 제주보다 오히려 해너복의 착용이 늦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조정철(趙貞喆)의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1812) 중 ‘탐라잠영’에서는 해너들의 소중이를 입고 작업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잠녀의 옷 한자로 짧아 알몸으로 만경 파도에 무자맥질
요즈음 일은 버겁고 어물은 잡기 어려운데
채찍질 예사로 몇 번을 판아에서 다스리던가.
잠녀는 천으로 작은 바지를 만들어 그 음부를 가리는데
사투리로 소중의(小中衣)라고 한다.
알몸으로 바다 속을 들고 난다.¹²⁾

이 기록을 살펴본 결과, 나체조업 금지령에 의해 비록 소중이를 착용하였지만 상의의 착용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의 나체로 조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년대 이후 나체로 작업을 하였다는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1700년경부터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해너복인 물소중이는 제주 여인들이 착용한 속옷인 소중이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림 2>의 소중이는 해너뿐만 아니라 제주도 여인들의 특징적인 속옷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초기에 속옷과 작업복과의 구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후 허리폭이 넓지 않던 소중이에서 허리부분이 넓어져 가슴까지 가릴 수 있게 되면서 ‘매친’이라는 어깨걸이 부분이 생겨나 점점 더 실용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후 오히려 해너들은 매친이 있는 물옷을 속옷이나 작업복으로 병행해서 착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물소

12) 趙貞喆 (1812), 靜軒瀛海處坎錄, 김익수 역 (2006), 정헌영해처감록, 제주문화사, pp. 580-591.

중이는 속옷이면서 동시에 겉옷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몸빼와 적삼을 입을 때는 허리와 가슴이 보이지 않은 편리성도 있었다.¹³⁾ 젊은 해녀들은 매친 대신 어깨말이(허리조끼)를 하였으나 매친에 비해 불편하여 매친을 그대로 사용한 사람도 많았다. 처녀들은 가슴이 보일 염려 때문에 어깨말이를 이용했으며 또한 물적삼을 따로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여도 착용하였다고 한다.¹⁴⁾ 실제로 1960년대 이전까지도 해녀복을 속옷으로 입는 사람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요즈음의 속옷보다 더 따뜻하다고 하여 노인들이 착용하였다고 한다.

물소중이 위에는 블라우스 형태의 상의를 입었는데 이를 ‘물적삼’이라고 하였으며, 적삼과 블라우스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30년에 블라우스가 국내에 도입되었으므로 1935년 즈음 이를 응용한 물적삼을 착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따라서 물적삼은 품이 있고, 우임인 적삼과 달리 블라우스와 같은 형식으로 여미게 되어 있으며, 물 속 작업 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가슴에 딱 맞게 끈으로 조여 입었다. 손목 부분도 같은 이유로 끈을 길게 달아 묶었지만 후에는 고무줄을 넣어 조였다. 물적삼 대부분은 물소중이의 겉 또는 안에 착용하였는데, 노인들은 물질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잘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젊은 해녀들은 햇볕과 추위를 막기 위해 또는 멧을 부리기 위해 많이 착용하였다. 겨울철에는 방한용으로 ‘물체’라는 누비옷을 착용하였다. 즉, 숨을 넣어 누빈 투박한 상의로 물질 갔다 온 후 추위를 덜기 위해 입었다.

물체 외에도 포대기와 유사한 형태의 방한용 누비 솔인 ‘뚜데기’는 불 톱에서 둘러쓰기도 하고, 육지로 물질을 갈 때는 이불로도 사용하였다.

그 외에 해녀들은 1910년 후반부터 머리에 물수건을 썼는데, 바람이 거센 제주에 적합하여 모자나 수건으로도 사용되었다. 1960년대 일본으로 출가했던 해녀의 보급으로 인해 물수건 대신 까부리를 쓰게 되었다.¹⁵⁾ 뒤집어쓰는 모자 형태인 까부리는 귀에서 뒷목까지 다 덮을 수 있어 더욱 따뜻하고 편리 하였으나 만들기가 번거로워 멧 부리는 젊은 해녀들이 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

13) 장애란, 안명숙 (1997),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탐라문화*, 18, p. 335.

14) 김정숙 (1990), 제주도해녀복연구, *탐라문화*, 10, p.76

15) *Ibid.* p. 84.



<그림 3> 1950년대 물질 나가는 해녀들

디지털 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이상과 같이 물소중이는 단순한 신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적 여건과 사회적 문제, 그리고 제주 여인의 생활의 지혜를 토대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다.

물질을 할 때 몸에 착용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였다. 먼저 물안경인 ‘눈’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의 물안경은 소형 알이 두개로 분리된 ‘쌍눈’이었고 1960년대 이후는 분리되지 않은 외눈이 사용되었다. 쌍눈을 ‘족은눈’ 또는 ‘족쇄눈’ 이라 하고, 외눈을 ‘큰눈’ 또는 ‘왕눈’이라고 불렀다. 또한 ‘큰눈’은 그 테두리의 재료를 처음에는 황동판으로 만들어 쓰다가, 1970년대부터 고무 옷이 보급되면서 테두리도 고무로 만든 ‘고무눈’을 사용하고 있다.¹⁶⁾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땐 ‘테왁’과 ‘망사리’를 들었는데, 테왁의 재료는 박이기 때문에 꼭테왁이라 불리었다. 잘 여문 박을 따내어 둥그런 구멍을 뚫고 박씨를 빼낸 후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아 만든 것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테왁을 사용하였다. 테왁 밑에는 ‘망사리’라는 그물이 달려있으며, 이는 ‘헛물망사리’와 ‘미역망사리’로 나뉜다. 헛물망사리는 그물이 촘촘하여 주로 진북, 소라, 성게 등을 캐서 담는데 사용하였고, 미역망사리는 미역, 톳 등 해조류를 담는 용도이기에 헐렁하게 짜여졌다. 조락은 오분자기 등의 자잘한 해

16) “해녀박물관“ 자료검색일 2011. 7. 16, <http://www.haenyeo.go.kr/search/view.p?croot2=4&gno=9>



산물을 따로 보관하는 작은 망사리이다.¹⁷⁾ 그 외에도 전복 등을 따기 위한 ‘빗창’, 문어나 성게를 잡을 때 쓰는 ‘골각지’ 또는 ‘호맹이’, 해조류를 캐 때 쓰는 낫 모양의 정개호미 등이 있다. 그리고 잠수를 하기 위해 무거운 납덩이를 허리에 매는데, 이것을 ‘납추’ 또는 ‘연철’이라고도 한다.


<그림 3>은 1950년대 물질 나가는 해녀들의 모습으로 전통 해녀복인 물소중이와 물적삼, 물수건을 착용하였고, 그 외에 큰눈, 호맹이, 테왁망사리 등을 볼 수 있다.

해녀복과 물질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17) Ibid, <http://www.haenyeo.go.kr/search/view.php?croot2=3&gno=15>

<표 2> 해녀복과 물질도구18)

		명칭	설 명	실 물 사 진
해 녀 복	상 의	물적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중이 위에 착용하는 블라우스 형태의 옷 	
		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한용 누비옷으로 착수의 저고리 형태 (1935년 이후) 	
	하 의	물 소 중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프수트(jumpsuit) 형태의 작업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하의(上下衣) 역할을 모두 함 • 1700년대 - 삼베(여름), 무명(겨울) 소재 • 1930년대 - 무명, 청목, 깃광목, 밀가루 부대 등을 소재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부분이 넓어지고 매친을 달아 착용 	

해 녀 복	기 타	<p>고무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p>납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작하게 만든 납덩어리 : 무게를 조절하여 쉽게 잠수하기 위해 허리에 차는 잠수 용구 		
		<p>물수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0년대 이후 직사각형의 물수건 착용 <p>까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모자형태의 까부리 착용 		
<p>뚜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대기 형태의 방안용 누비 술 • 바깥물질 시에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 				

도 구	물안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사용하기 시작(추정) 초기 - 작은 눈, 족쇄 눈, 쌍 눈 (소형, 알이 두 개로 분리) • 1960년대 이후 - 큰 눈, 외눈, 왕눈 	 
	호맹이 (골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분자기나 성게나 문어를 채취할 때 사용 • 긴 것은 문어, 짧고 날카로운 것은 오분자기 채취 용 김을 딸 때 사용하는 호미(골갱이)와 비슷 	
	빗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복 따는 도구 	
	테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위 띄워 놓고 물질하는 도구 • 바다에서 올라와 숨을 고르며 쉬는 장소의 역할 • 해녀의 위치를 알 수 있음 	
	망사리 (망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취한 해산물 등을 담은 그물 • 보통 테왁에 연결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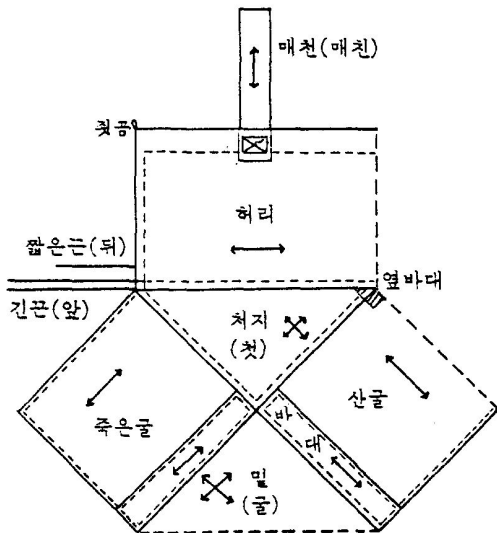
18) “해녀박물관 소장 유물검색” 자료검색일 2011. 7. 15. <http://www.haenyeo.go.kr/search/list.php> 사진 인용

2. 제주 전통 해녀복의 특성 분석

1) 구조적인 측면

제주 전통 해녀복 물소중이는 아래에서부터 입는 바지 형태로, 매친을 어깨에 걸고 오른쪽 옆 부분을 끈 또는 매듭단추로 여며 입는 착장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 해녀복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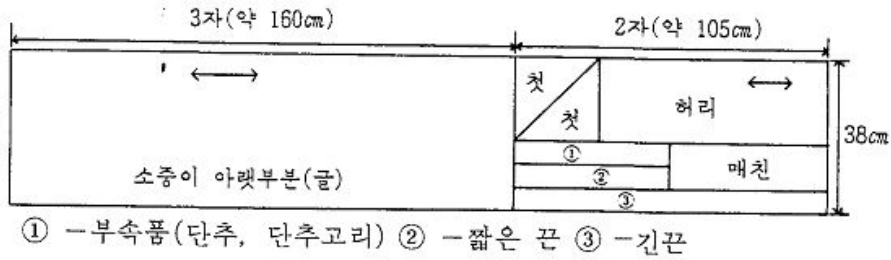
물소중이를 착용하였을 때 다리는 양쪽 굴 부분으로 나오고, 매친은 어깨에 건다. 착용 시 오른쪽 부분은 모두 트여 있는 상태로 끈 또는 매듭단추로 여민다. 역사적 사건으로 제주여인들은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 혹욕(酷辱)을 염려하여 잘 때에는 물소중이를 착용한 위에 반대 여임의 물소중이 한 벌을 더 착용하여 몸을 보호하였다고 한다.

<그림 4> 물소중이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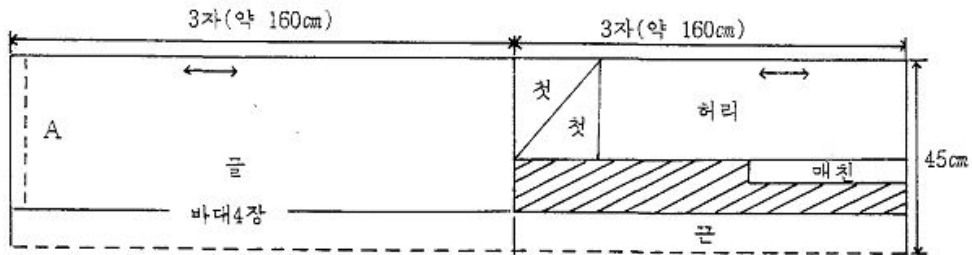
제주도 해녀복 연구, p 119

당시 대부분의 의복 재료는 무명(미녕:방언)이었으나, 제주에서 목면은 육지에 비해 적은 양이 생산되었고, 그나마 대부분 공물로 바쳤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였다. 대부분 한국의 전통복식의 제작과 마찬가지로 제주 역시 귀한 옷감을 활용하여 조금의 손실도 없이 물소중이를 제작해야만 하였다. <그림 5>은 무명과 광목의 크기에 따라 마름질한 예이다.

(1) 무명 38cm 폭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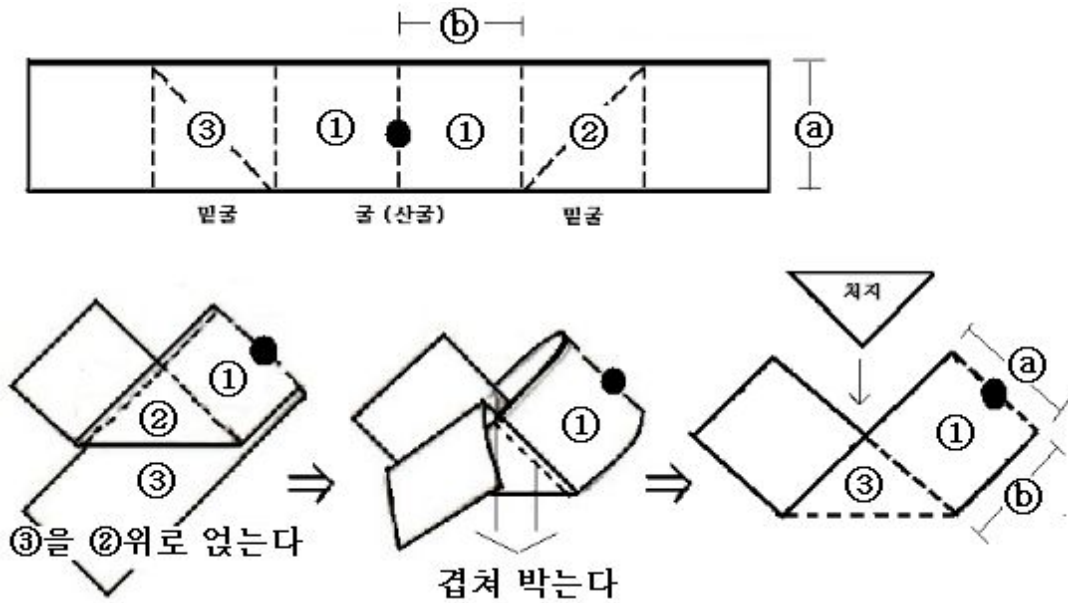
(2) 광복 90cm 폭일 경우



<그림 5> 물소중이의 마름질
 제주도 해녀복 연구, p 120

물소중이 제작에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 6>과 같이 굴을 잡는 것이다. 앞과 뒤가 같은 평면 구조이므로 굴선을 중심으로 앞뒤를 같은 크기로 접는다. 물소중이는 정해진 제도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신체를 자 대신 이용하여 한 발¹⁹⁾, 한 뺨²⁰⁾, 한 조리²¹⁾ 등으로 그 길이를 가늠하였다. 굴의 전체 길이는 보통 한 발에 한 뺨을 더한 길이로 하고, ①의 길이는 두 뺨 정도로 하였으며 ②부분의 길이는 대퇴부 가장 굵은 부위의 1/2로, 뚱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뺨 하고 엄지손가락을 더한 길이로 정한다.²²⁾ 가운데 굴선을 중심으로 양쪽의 ①끼리 마주보고 접는다. 위에 올려진 ②부분을 먼저 사선으로 만나는 각이 직각이 되도록 올려 접고 아래쪽 ③부분을 먼저 접은 ②를 감싸며 올려 엮는다.

19) 양쪽 팔을 벌려 양쪽 손끝까지의 길이.
 20) 엄지와 중지 사이의 길이.
 21) 엄지와 검지 사이의 길이.
 22) 김정숙 (1990), 제주도해녀복연구, 탐라문화, 10, p. 122.



<그림 6> 물소중이 굴잡기 및 연결하기

마지막으로 밑굴 부분을 ④와 같이 박는다. 이렇게 봐야 통처럼 생긴 공간은 완성 후 왼쪽 다리가 들어갈 곳이다. 완성된 굴에 앞뒤로 처지를 연결하고 허리와 매친을 달면 모양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소중이는 합리적인 제작 방법 못지않게 작업복으로써 매우 기능적이다. 그 기능성의 중심에는 옆트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라는 유교사회에서 노출이 가능한 겉옷은 제주의 물소중이가 유일하다. 옆트임이 주는 기능성으로는 첫째, 의복의 착탈(着脫)이 용이하다. 해녀들은 주로 옷을 갈아입을 곳이 따로 없는 바닷가나 배위에서 주로 해너복을 입거나 젖은 해너복을 마른 옷 또는 다른 해너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한 쪽이 완전히 트여 있어 한쪽 다리만 소중이에 넣으면 다른 부분은 여미는 것으로 착의가 끝나고, 마찬가지로 비록 젖은 상태로 벗기 힘들지라도 여밈만 풀다면 탈의가 이루어지므로 작업복으로서의 편리함이 매우 우수하다. 둘째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착용하는 사람에게 체중의 변화가 있거나 임신을 한 경우에도 옆트

임을 조절하여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밑 굴 부분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위생적이어서 활동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넓은 허리부분은 상의를 따로 입지 않아도 가슴을 가릴 수 있고 매친은 물속에서도 옷이 벗겨질 염려 없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 준다. 이와 같은 우수한 제주 전통 해녀복은 일본으로 물질을 나간 제주 해녀들이 일본에 전파하였고, 일본해녀들은 일본의 전통 해녀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소중이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조오생’이라 부르며 즐겨 착용하였다고 한다.

(2) 장식적인 측면

물소중이는 기능성과 합리성이 강조된 작업복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이 추구된 장식적인 디테일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물소중이는 물속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 옷으로 물에 삭기도 하고 바위나 채취하는 어패류의 껍질에 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제작되었다. 그 예가 바로 ‘바대’로, 주로 물소중이의 굴의 선과 선이 만나 바느질이 되는 부분 그리고 작업 시 특히 많이 움직여 쉽게 헤지기 쉬운 가량이 부분에 바대를 뒀다.

바대는 손상되기 쉬운 부분을 보호하는 차원에 활용된 반면 장식적인 차원에서도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처지, 허리, 매친, 옆트임에 재봉틀로 다이아몬드 무늬, 꽃무늬, 나뭇잎무늬, 줄무늬 스티치로 장식되었다.²³⁾ 꽃무늬라 함은 <그림 7>과 같이 칠보문을 연결하여 반복 사용하였을 때의 문양으로 <그림 8>에서 바대에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문양의 1/4 한 부분을 분리하면 <그림 12>의 나뭇잎 형태의 문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문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는 시각에 따라 꽃문양과 동그라미문양이 반복되어 보이는 점이다. 칠보문은 자손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상징적 의미가 함축된 무늬이다. <그림 7>의 칠보문은 둥근 원 속에 네모 모양이 들어 있는 무늬로 전보(錢寶)라 일컫는다. 칠보의 ‘보(寶)’는 복(福)자와 비슷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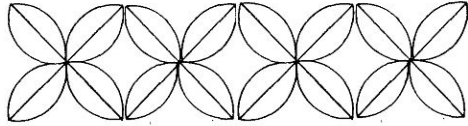
23) 김정숙 (1990), 제주도해녀복연구, 탐라문화, 10. p. 76.

음이 나기 때문에 복을 뜻하고, 복을 상징하는 것은 돈이다. 옛날 엽전의 모양이 걸 둘레는 둥글고 속은 네모난 구멍이 있는 고리 모양으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²⁴⁾ 동그라미문은 우주 또는 태양을 의미하므로, 우리 조상들은 모든 것에서 원 모양을 찾아냈다. 하늘 · 태양 · 달뿐만 아니라 산 · 고개 · 강 · 길 · 알 등 자연의 원과 우물 · 구슬 · 그릇 · 거울 등 인위적인 원을 형상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둥근 형태가 동양인들의 고대 우주관인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사상의 하늘(天)을 상징²⁵⁾ 하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그림 11>과 같은 도자기나 의복, 사찰의 현판, 가구 등 칠보문양으로 장식하였다.

칠보 종류에는 복을 상징하는 전보(錢寶), 다복을 상징하는 서각보(犀角寶), 경사를 뜻하는 방승보(方勝寶), 타고난 복과 벼슬의 녹을 상징하는 화보와 서보(書寶), 장수를 상징하는 애엽보(艾葉寶), 다복을 의미하는 경보(鏡寶), 귀함을 상징하는 특경보(特磬寶) 등이 있다.²⁶⁾

<그림 9>의 마름모문은 <그림 10>과 같이 물소중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양이다. 마름모형의 기하문이 반복된 문양에는 정제된 미가 함축되어 있다. 연속적으로 사선을 나열하면 각종의 마름모 문양이 되며, 이는 대광주리 등에서 볼 수 있는 비사문(毘沙門)무늬 · 귀갑(龜甲)무늬²⁷⁾ 등이 있다. 직선문, 빗금문은 떡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순한 기하무늬로, 이미 신석기시대의 토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래되고 폭넓게 활용된 무늬이다. 또한 신석기시대 토기 등 고대 미술의 고식(古式)무늬로서 청동기를 비롯해 토기, 석기, 골각기 등에 장식된 의장 요소이다. 떡살무늬로써 빗금무늬는 직선으로 그린 직선무늬, 옆으로 비스듬히 그은 사선무늬 그리고 다른 무늬들과 복합적으로 새겨져 있는 복합무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떡살이나 다식판의 빗금문에는 장수 · 해로 · 길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²⁸⁾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하나의 문양을 단편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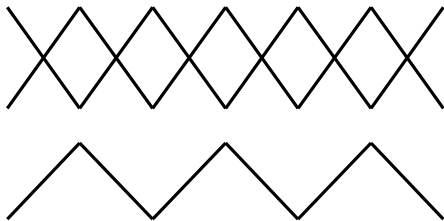
24) 자료검색일(2011. 7. 20), 문화포탈 한국의 문양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partDtl.do?did=40009&reffer=shape&dpid=142&sType=04>
 25) *Ibid.*
 26) 자료검색일(2011. 7. 20), 문화포탈 한국의 문양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partDtl.do?did=40009&reffer=shape&dpid=142&sType=04>
 27) *Ibid.*



<그림 7> 칠보문 中 진보(錢寶)문
제주도 해녀복 연구, p 131



<그림 8> 검정 물소중이 I
제주자연사 박물관 소장



<그림 9> 마름모문, 능문



<그림 10> 검정 물소중이 II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1> 분청자투각표형박산향로
디아모레뮤지엄 소장



<그림 12> 검정 물소중이 II의 매친과 옆 바대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로 사용하기 보다는 각각의 다른 문양들을 하나로 조합하여 많은 의미를 함축시키거나 새로운 의미가 내포된 하나의 문양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물소중이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식은 연봉매듭으로 이루어진 매듭단추이다. 초기에는 트임이 있는 오른쪽 옆선 부분에 끈을 달아 여며 입었다. 그러나 물에 젖으면 끈이 더욱 단단하여 풀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풀기 쉬운 매듭단추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듭단추의 고리 길이를 조절하여 부착시킴으로써 물소중이의 품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으며, 물속 작업 중에도 쉽게 풀리지 않으며, 또한 쉽게 벗을 수 있도록 한 장치였다. 이상과 같이 매듭단추는 물소중이의 기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역할도 하였다.

28) 자료검색일(2011. 7. 20), 문화포탈 한국의 문양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partDtl.do?did=40009&reffer=shape&dpid=142&sType=04>

Ⅲ. 제주 전통 해녀복을 응용한 문화관광 상품개발

1. 디자인 의도

본 연구는 전통 해녀복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통 해녀복에 관한 이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전통 해녀복인 물소중이와 물질 도구 등의 구조와 형태, 장식 등을 분석·응용하여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절충된 제주적인 문화관광 상품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아이템의 문화관광 상품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패션소품인 가방, 에이프런 등으로 제한하여 제작하였다. 소재로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면 종류(캠퍼스지, 옥스퍼드지 등)에 천연염색(감물, 역새, 치자 등)된 옷감을 사용하였다.

2. 디자인 및 제작

1) 에이프런

최근 에이프런은 한국적인 이미지가 표현된 관광상품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다. 특히 제주는 단순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작업복이지만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제주적인 이미지가 함축된 에이프런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색한 원단을 이용하여 독특하고 고급스러우며 멋스러운 스타일의 에이프런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작품 1 : 물소중이의 외형적 특성을 응용한 베스트형 에이프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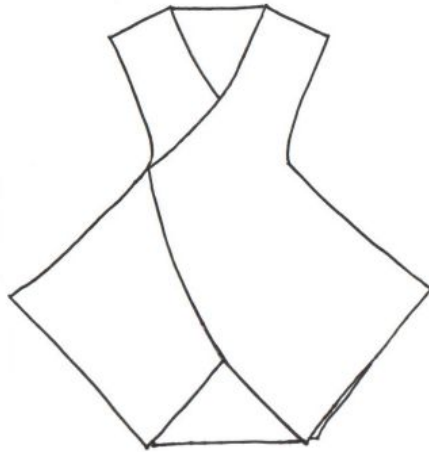
<작품 1>은 어깨말이(허리조끼) 스타일의 상의(상의)와 육각형 형태의 하의(골)가 원피스형으로 구성된 물소중이의 기본적인 외형 특성을 전제로 에이프런의 기능적인 넉넉함을 주기위해 플레어스타일의 베스트형 에이프런이다. 소재는 역사로 천연염색된 머슬린(muslin)을 사용하였다. 역사를 이용한 천연염색 방법은 하얀 역사꽃이 피기 전에 채취하여 끓인 후 추출한 염액에 침염을 한 후 철매염으로 후매염처리를 하였다.

구성은 안쪽에는 끈을 달았고 겉에는 연봉매듭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하였고, 서플리스 라인에 나뭇잎 모양의 아크릴비즈를 달아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었다. 단추의 고정은 물소중이의 바대 또는 단추 고정방식을 활용하여 천을 덧대었고, 그 위에 칠보문의 일부(나뭇잎 문양)를 수로 놓았다.

따라서 <작품 1>의 컨셉을 정리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작품 1의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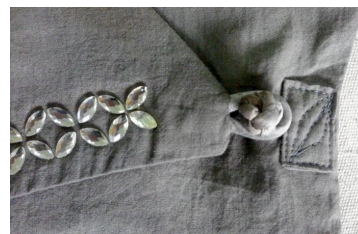
디자인 구성	특 징
구 성	- 랩(wrap)스타일 - 물소중이 하의 부분인 육각 형태를 응용 -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위한 플레어 스타일
장 식	- 꽃문양 위주의 전보문을 아크릴 비즈로 표현 - 물소중이의 여밈과 같은 형태의 끈과 매듭 단추로 여밈 - 단추 고정 시 나뭇잎 문양 자수
소 재	- 30수 머슬린, 아크릴 비즈 - 제주 역사의 천연염색과 철매염처리에 의한 연한 차콜 색상 연출
문화관광상품 으로써 특성	- 역사 천연염색을 이용함으로써 제주의 청청 자연 이미지는 물론 제주도의 현무암 이미지가 반영된 작품



<그림 13> 작품 1의 도식화



<그림 14> 작품 1의 실물 사진



<그림 15> 작품1의 디테일 사진

(2) 작품 2 : 물소중이의 외형적 특성을 응용한 스커트형의 에이프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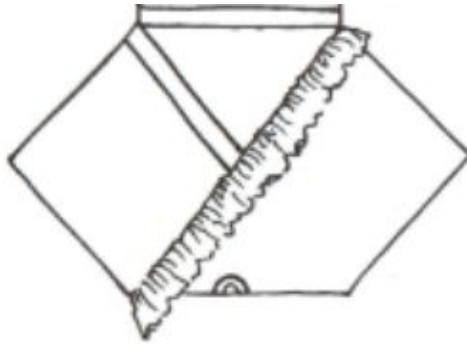
<작품 2>는 물소중이의 외형적 특성을 응용한 스커트형의 에이프런으로, 울금으로 천연염색²⁹⁾된 광목 소재를 사용하였다. 스커트부분을 물소중이의 굴 접는 방식을 응용하였다. 앞뒤의 밑 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록 물소중이에서의 역할은 아니지만, 스커트 패턴상 아래 세면이 트여 있고 원단 역시 얇아 쉽게 펼럭일 수 있는 단점을 앞 뒤 각 두 겹으로 이루어진 밑단(굴 부분) 덕분에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 앞과 뒤의 패턴이 같고, 허리를 고무줄로 마무리하여 착용과 탈의가 용의하다. 물소중이는 여성스러움 보다는 강인함의 이미지가 더 강하므로,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함으로써 여성스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또한 프릴 장식을 더하여 좀 더 여성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 스커트 일부에 놓을 수 장식은 전통 물소중이에 사용되었던 전보문으로, 동그라미문 안에 마름모문이 들어간 기하학문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네 잎의 꽃모양으로 보이는 전통문양이다.

따라서 <작품 2>의 컨셉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작품 2의 디자인 컨셉

디자인 구성	특 징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소중이의 굴 접는 방식을 그대로 응용한 스커트형 에이프런 - 원단의 드레이프성으로 자연스러운 실루엣 연출
장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릴을 이용하여 바다, 파도 등의 이미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여성스러움을 강조 - 바대와 오른쪽(착용 시) 스커트 전면에 산호색 실로 능문과 전보문, 변형된 칠보문으로 자수
소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수 머슬린 (면) - 울금으로 천연염하여 황토빛 색상 연출
문화관광상품으로써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소중이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흥미 유발

29) 울금으로 염색한 후 후매염처리로 동매염을 하였다.



<그림 16> 작품 2의 도식화



<그림 17> 작품 2의 실물 사진



<그림 18> 작품 2의 디테일 사진

(3) 작품 3 : 물소중이의 형태와 기능을 재현한 에이프런

<작품 3>은 물소중이 형태와 기능을 재현한 에이프런으로, 광목에 추출한 양과 염액에 침염(浸染)을 한 후, 동매염과 철매염으로 황토색과 연한 카키색을 만들었다. 앞부분은 스커트 스타일로 물소중이의 육각모양으로 한 후 양쪽 모서리 끝을 벨크로를 사용하여 겹쳐 여미게 되어 있다. 포켓은 <그림 21>과 같이 물소중이의 굴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즉, 원통형의 원단을 굴 접는 방식으로 접어 아래 세 변을 에이프런에 부착시켰고, 양쪽 손이 들어가는 원통의 입구 부분은 에이프런에 닿는 부분만 부착함으로서 양쪽 원통형의 깊이 있는 포켓이 생기게 하였다.

따라서 <작품 3>의 컨셉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작품 3의 디자인 컨셉

디자인 구성	특 징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소중이를 펼쳐 놓은 평면 패턴 - 물소중이의 굴 접는 방식을 응용한 3holes pocket
장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보 문양을 감물을 이용하여 스텐실 기법으로 표현 - 목 부분의 끈에 같은 색상의 실로 능문 자수 - 주머니를 접는 형식의 굴 형태를 그대로 차용
소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수 광목 (면) - 양파로 천연염색 후 철매염과 동매염으로 각각 황토색과 카키색상 연출
문화관광상품으로써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특한 디자인, 포켓의 수납을 위한 실용성



<그림 19> 작품 3의 펼친 실물사진



<그림 20> 작품 3의 실물사진



<그림 21> 작품 3의 디테일 사진

2) 가방

(1) 작품 4 : 물소중이의 형태적 특징을 응용한 크로스 백

물소중이의 형태 자체를 차용한 크로스백과 토트백으로, 두께감이 있는 캔버스를 소재로 하였다. 디자인의 특징은 물소중이와 같이 크로스백의 한쪽 옆선에 지퍼를 달아 가방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소지품을 넣고 꺼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지만 각기 다른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크로스백을 제작할 수 있었다. 즉, <그림 21>은 제주 조릿대로 염색된 캔버스 가방 위에 탐라순력도를 전사 처리하여 장식한 크로스백이며, <그림 22>은 완성된 가방에 검정물소중이의 일부분을 전사 처리한 것이다.

<그림 23>의 토트백은 물소중이의 육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각 형태와는 달리 육각의 형태가 특이하며, 가방 전면에 물질도구인 태와과 망사리를 화려한 핫픽스로 표현함으로써 면소재인 캔버스지와 화려한 핫픽스를 매치시켜 상반되는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따라서 작품 4의 컨셉은 <표 6>와 같다.

<표 6> 작품 4의 디자인 컨셉

디자인 구성	특 징
구 조	- 물소중이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 - 한쪽 옆선에 지퍼를 달아 기능성 추구
장 식	- 물소중이 및 탐라순력도를 가방 장식에 활용 - 태와과 망사리를 핫픽스로 표현하여 부착
소 재	- 10수 캔버스(면), 가방 고리, 전사지, 소가죽 가방끈, 핫픽스 - 제주 조릿대를 천연염색한 캔버스
문화관광상품 으로써 특성	- 제주 유물을 응용,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함축된 기능적 디자인



<그림 21> 작품 4-1의 실물사진



<그림 22> 작품 4-2의 실물사진



<그림 23> 작품 4-3의 실물사진

(2) 작품 5 : 물소중이의 형태적 특징을 응용한 파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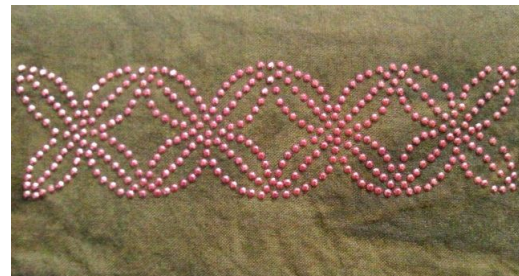
<작품 5>은 물소중이의 형태를 응용한 파우치로, 처지 윗부분에 지퍼를 달아 수납의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소재는 1차 염으로 치자로 염색한 후 감물로 재염색한 면소재 (광목)로 제작하였다. 특히 감물의 원액의 농도가 강할수록 탄닌에 의해 광목이 뻣뻣해지고 색상이 짙어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건조시킬 때 일정한 링클을 주어 가죽 느낌의 텍스처를 주었다. 파우치 덮개 부분에는 연속 칠보문을 핫핑크 색상의 핫픽스로 장식함으로써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보강하였다.

이 파우치의 특징은 갈 천과 체크무늬가 있는 원단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점, 소량의 지퍼와 카드 등을 여러 방향으로 수납이 가능하고 열쇠고리를 부착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품 5>의 컨셉을 정리하면 <표 7>와 같다.

<표 7> 작품 5의 디자인 컨셉

디자인 구성	특 징
구 조	- 물소중이의 형태를 응용하여 허리부분을 길게 변형시킨 형태 - 처지 윗부분에 지퍼를 달아 수납이 용이한 실용성 추구
장 식	- 링클을 준 감물 염색으로 가죽 느낌을 재현 - 연속 칠보문의 핫픽스 표현
소 재	- 20수 광목(면), 핫픽스 - 치자와 감물의 복합염으로 투톤의 가죽 느낌 표현
문화관광상품 으로써 특성	- 부피가 작고 실용적인 아이템 - 향토적인 디자인에 현대적 장식



<그림 25> 작품 5의 실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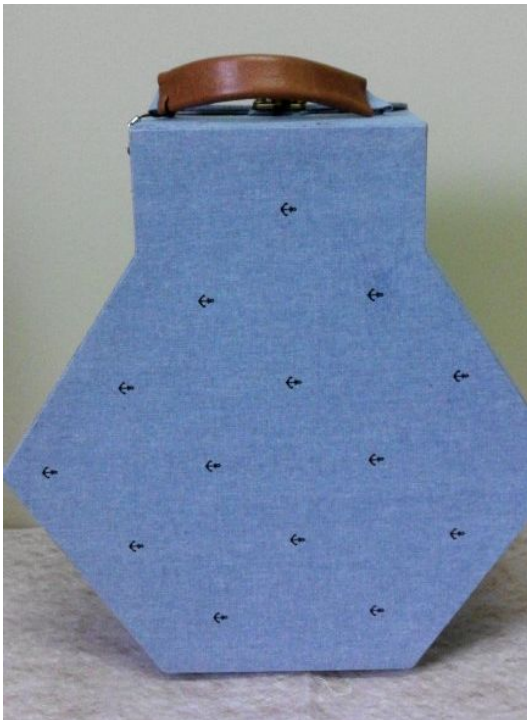
(3) 작품 6 : 물소중이 형태를 응용한 까또나주 파우더케이스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까또나주를 이용한 가방을 제작하였다. 까또나주(카르
트나쥬 cartenage)는 프랑스어로 판지 공예라는 뜻으로, 두꺼운 판지로 상자 또
는 틀을 만들어 종이나 페브릭으로 장식하는 공예품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
방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 대신 얇은 판자를 이용하였지만, 무게는 일반
토틀백 보다 무겁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형태는 물소중이의 허리와 굴 부분의 모
양을 응용하여, 앞의 겉면에는 얇은 킨팅솜을 넣어 입체감과 쿠션감을 주었으며
손잡이는 가죽을 이용하여 실용적으로 제작하였다. 다양한 사이즈로 한다면 패션
소품으로도 공예품으로도 좋은 제품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작품 6의 컨셉을 정리하면 <표 8>와 같다.

<표 8> 작품 6의 디자인 컨셉

디자인 구성	특 징
구 조	- 물소중이의 형태를 응용
장 식	- 특별한 장식 없이 가죽손잡이와 철제 버클 등이 장식의 역할
소 재	- 얇은 판자, 30수 면 원단, 가죽, 킨팅 솜, 철제 가방 고리
문화관광상품 으로써 특성	- 물소중이 형태와 현대적 소재를 절충



<그림 26> 작품 6의 실물사진

IV. 결 론

물소중이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제주의 전통 노동복의 일종이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소중이의 제작방법은 기존의 의복 제작 방법과는 상이하다. 즉, 직사각형의 원단을 접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로 매친과 바대, 끈 등을 만들어 부착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둘째, 속옷에서 기인하여 겉옷으로 발전한 작업복인 물소중이는 실생활에서는 속옷이면서 겉옷의 역할을 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까지도 속옷 대용으로 착용하였다. 셋째, 물소중이는 편리성이 우수한 의복이다. 착용 시에는 왼쪽 다리만 넣고 여밈만으로 착용이 완료되고, 탈의 시에도 여밈만 풀면 쉽게 탈의가 가능하여 작업 활동에 매우 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여밈 부분을 이용하여 임신을 하거나 출산 등 신체 사이즈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옷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넷째, 여밈 부분으로 인해 물소중이는 착용 시 노출이 많은 작업복이다.

이상과 같이 기능성이 매우 중요한 작업복임에도 불구하고, 물소중이에는 다양한 디테일을 통해 장식적 효과를 주었다. 예를 들면, 해지기 쉬운 부분에 천을 덧대어 물소중이의 실용성을 높이려고 한 반면, 색상이 다른 원단을 덧대거나 옆바대의 경우는 삼각형 등의 모양을 만들어 덧대어 장식적 효과를 연출하였다. 바대를 덧댈 때에는 보색의 실을 이용하여 전보문이나 마름모문, 능문, 곡문, 나뭇잎문 등의 자수를 놓아 장식하였고, 그 문양들은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해녀들의 많은 염원을 담은 장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소중이의 형태적·기능적인 구조의 특성과 디테일의 장식적 특성을 응용하여 패션소품을 중심으로 제주적인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였다. 즉, 천연염색한 다양한 소재와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주의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물소중이의 과학적이고 독특한 구조를 재현하여 패션 소품 중심의 관광 상품으로 제시하기에는 실제로 한계가 있었지

만, 물소중이가 갖는 형태적 특징과 장식적 디테일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개발된 에이프런, 가방 등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적인 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으리 라고 사려된다.

참 고 문 헌

[학위논문]

- 강노이 (2006), 濟州島 觀光 商品 裝身具 디자인 開發 및 活性化 方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부자 (1971),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정 (2011), 패션 소품 브랜드의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학사학위논문
- 배순미 (1998), 한국전통매듭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애진 (1990), 濟州地方 民俗服인 勞動服의 製作技法에 대한 研究 : 갈옷과 海女服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숙연 (1994), 제주 해녀의 삶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용 (2011), 국가브랜드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관광기념품 디자인 연구 : 캐릭터그램 제품 개발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경 (2010), 가방에 표현된 프린트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민 (2005), 기하학적 전통 문양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 (2009), 물소중이를 응용한 젓먹이용 옷 개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덕분 (2002), 관광기념품 구매속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논문]

- 고경란 (2010), 제주전통 갈옷패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색디자인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4
- 김영돈 (1986) 濟州海女の 民俗學的 研究, *濟州道研究* 3
- 김성훈 (2006), 전라남도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동신대학교 論文集*, 16
- 김정숙 (1990), 제주도 해녀복 연구, *탐라문화*, 10.
- 남윤자, 라의숙 (2000), 천연염색을 응용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문집*, 4
- 송진희 (2008), 자치단체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學術論文集*, 29
- 안미정 (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濟州道研究* 15
- 양명식, 전철, 양철주 (2003), 양과외피를 이용한 한지염색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17
- 유지현, 박연선 (2010), 천연염색컬러 활용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4
- 박찬식 (2011), 근현대 제주역사, *교류회보고서*, 1
- 장애란, 안명숙 (1997), 제주 해녀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탐라문화*, 18
- 좌혜경, 권미선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濟州道研究* 32

[도서 단행본]

- 장대원 (1973), *海女研究*, 서울 : 韓進文化社
- 국립제주박물관 편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울 : 통천문화사
- 김영돈 (2002), *韓國의 海女*, 서울 : 민속원
- 김은영 (2003), *(아름다운 우리 전통) 매듭 만들기*, 서울: 미진사
- 김지희, 정관채 (2009), *자연염색공예*, 서울: 한국공예문화진흥원
- 김영인 외 (2001), *현대 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서울: 敎文社
- 남성우 (2000), *천연염색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보성문화사
- 박자영, 박진하 (2006), *리본공예 큐빅공예, 셀핀*
- 박현영 (2009), *(제주의 색) 감물염색*, 제주 : 제주넷

司馬遼太郎 (1986), *耽羅紀行*, 박기엽 역 (1998), *탐라기행*, 학고재

안영무 (2010), *패션소재 컬러 디자인*, 수학사

윤소영 (2009), *친절한 패션핸드 페인팅 DIY*, 터닝포인트

李衡祥,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제주시소장본, 1994)

유송옥 (1997),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전경일 (2010), *해녀처럼 경영하라*, 서울 : 다빈치북스

정연희, 뽀모 (2011), *(손끝으로 꿈꾸는) 까또나주*, 서울 : 제우미디어

趙貞喆 (1812), *靜軒瀛海處坎錄*, 김익수 역 (2006), *정헌영해처감록*, 제주문화사

좌혜경 외 (200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해녀*, 서울: 민속원

제주대학교 편 (2010), *제주의 복식*, 제주 :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편 (2010), 제주대학교 도록 VI : *제주의 복식*, 제주: 제주대 박물관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편 (2006), *濟州道誌*, 제주: 濟州道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편 (2009), *제주 해녀의 생업과 문화*

[인터넷자료]

“한국의 문양”, 자료검색일 2011. 7. 20, <http://www.culture.go.kr/pattern>

좌혜경, “제주해녀사”, 자료검색일 2011. 7. 13, <http://www.haenyeo.go.kr>

좌용철 211. 6. 02. “해녀? 잠녀? 진짜 제주어는 뭐?...학자도 의원도 헛갈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264> 참조

“칠보문양” 자료검색일 2011. 7. 15,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orgDtl.do?did=17600&reffer=shape&sType=04>

“마름모문” 자료검색일 2011. 7. 15,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partDtl.do?sType=05&reffer=shape&did=12157>

“동그라미문” 자료검색일 2011. 7. 15,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partDtl.do?did=44470&reffer=shape&dpid=145&sType=07>

“빗금문” 자료검색일 2011. 7. 15,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partDtl.do?sType=05&reffer=shape&did=13628>

“해녀박물관 자료실 유물검색”, 자료검색일 2011. 7. 16, <http://www.haenyeo.go.kr/search/list.php>

“고무옷”, 자료검색일 2011. 7. 16, <http://www.haenyeo.go.kr/ekboard/list.php?btable=gallery&mode=&search=&keyword=&sort=notice+desc,+fid+desc,+thread&recnum=&cate=&p=19>

“물체” 자료검색일 2011. 7. 16, <http://www.haenyeo.go.kr/search/view.php?croot2=1&gno=29>

“뚜데기” 자료검색일 2011. 7. 16, <http://www.haenyeo.go.kr/search/view.php?croot2=1&gno=30>

자료검색일 2011. 7. 16, <http://www.haenyeo.go.kr/search/view.php?croot2=4&gno=9>

“테왁망사리”, 자료검색일 2011. 7. 16, <http://www.haenyeo.go.kr/search/view.php?croot2=3&gno=15>

“소중이”, 자료검색일 2011. 7. 18, <http://museum.jeu.go.kr/new/index.jsp#gogo>

“분청자투각표형박산향료”, 자료검색일 2011. 7. 20,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partDtl.do?did=14908&reffer=shape&dpid=142&sType=04>

“분청자투각표형박산향료”, 자료검색일 2011. 7. 20, <http://www.culture.go.kr/pattern/service/partDtl.do?did=14908&reffer=shape&dpid=142&sType=04>

“해녀이야기”, 자료검색일 2011. 7. 21, <http://www.haenyeo.go.kr/ekboard/list.php?btable=bbs>

“1970년대 해녀모습”, 자료검색일 2011. 7. 25,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

“1950년대 물질 나가는 해녀들”, 자료검색일 2011. 7. 25, <http://jeju.grandculture.net>

ABSTRACT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products applying Jeju traditional Woman diver's clothing

Yoon Seong-hee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Ae-Ran

Jeju island is trying to distinguish cultural identity of Jeju by selecting various cultural events and strategies to develop characteristics of Jeju itself. Jeju island selected 'Jeju 10 cultural symbols' to improve and promote image of Jeju culture. Among them, Woman diver classified as a social life heritage is a symbol of Jeju woman and icon of Jeju woman culture. To systematically develop, preserve, and transmit unique community culture of Woman diver, in 2011,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committed to select 'Globalization of Jeju Woman diver culture' as 50 agendas by establishing 'basic plan during 5 years for Globalization of Jeju Woman diver culture' from 2011 to 2015.

Accordingly, as a method to promote excellence and cultural value of Woman culture more effectively,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products which can be actually experienced is eagerly required. It is thought that if originative design is developed with the background of originative culture, it would be highly helpful in developing tangible and intangible contents of Jeju Woman diver cultur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encourage

preservation of tradition and popularization of Jeju traditional Woman diver's clothing but also to prepare an opportunity to promote excellence of Woman diver culture and to improve level of local culture. To do this, traditional Woman diver's clothing made based on scientific and sanitary measured method was investigated and as a result, Jeju cultural tourism products can be developed and supplied. This study also aimed to make traditional culture of Jeju Woman diver and excellence of traditional Woman diver's clothing known in the world.

Jeju Woman diver not only led household in the barren environment of Jeju but also developed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 in the largest scale led by woman in domestic area i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The first historical record related to Jeju Woman diver can be found in Goguryeo Bongi of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Then times, works were done together with man and working uniform was not put on. But as 'ordinance prohibiting work in nude' came into effect in King Sukjong of Chosun, Mul-sojungi, the traditional Woman diver's clothing was first appeared. Mul-sojungi is called Mulot or Water clothing, Zamnyeo-ot or Woman diver's clothing and this was put on when collecting seaweed, turban shell etc. Mul-sojungi is originated from Sojungi which was an unique underwear for Jeju woman and developed to outer garment as working uniform. This clothing is characterized by its firmness and convenience.

For manufacture methods, the clothing has a scientific and reasonable composition - Put-on, put-off is easy; size adjustment fit to body shape is available, when one becomes fat or pregnant by the structure of the right side opened perfectly. It is the only one in traditional Korean clothes that the body is disclosed. When Jeju Woman diver left the homeground to dive to Japan, Japanese Woman diver liked to put on Mul-sojungi and

called it 'Josheng' because it was convenient, although they had their own traditional Woman diver's clothing. This record implies the excellence of Jeju Woman diver's clothing. Therefore, Mul-sojunggi represents spirit of Jeju woman, where their strong vitality and wisdom in a daily life are embedded. Furthermore, it is assumed that the traditional Woman diver's clothing not only made excellence of our culture known but also played a great role in establishing national image of Chosun in Japan.

Though the traditional Woman diver's clothing is an working uniform to stress practical func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re are details for various decoration effects in Mul-sojunggi.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ed cultural tourism products symbolizing Jeju centered on fashion trifling articles by introducing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structure and decorational characteristics of details of Mul-sojunggi. Actually, there was limitation in suggesting tourism products by reproducing the scientific and unique structure of Mul-sojunggi. But it was worth to reinterpret in modern way and design formal characteristics and decorational details of Mul-sojunggi. It is thought that accessories, bags, clothes etc. developed based on this could appeal to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as tourism products symbolizing Jeju. We can see the decorative details like pieces of embroidery and knots for aesthetic pursuit as well as a functional reason.

Key Words : Jeju traditional Woman diver's clothing, 'Mul-sojunggi', 'Chilbomun', cultural tourism products

감사의 글

우여곡절 끝에 마친 대학원 생활을 한 권의 논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니 시원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큼니다. 볼수록 부족함이 느껴지는 논문에 부끄럽지만 다음을 또 기약해 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쉽지 않은 대학원 생활을 마칠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대학원 내내 많은 가르침과 격려, 그리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애란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논문을 살펴봐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송미경 교수님과 작은 것 하나가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장현주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남편 정윤석씨와 바쁜 엄마를 이해해준 민이, 현이, 유진이 그리고 뱃속에 막둥이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대학원을 다니고 논문을 쓰는 동안 항상 관심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리며, 동기이자 엄마이자 언니이자 친구인 오정순 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친동생처럼 아끼고 항상 걱정해주며 도와준 고영신 언니에게도 언니가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항상 걱정만 끼치던 큰 딸의 학위를 기뻐해주신 엄마 이연순님, 항상 언니를 믿어준 동생 지혜에게도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이제 대학원이라는 학업은 마쳤지만 저의 공부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제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나갈 것입니다.

패션 디자인은 예술입니다. 또한 패션을 위한 시작이라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많은 대중들에게는 거창하고 대단하게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더 쉽고 친밀하게 대중 속에서 패션 디자인은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예술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윤 성 희 올림